

[특별기고]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운영 성과와 특성화 방안

윤 승 준*

목 차	
I. 연구소 설립 배경과 역사	III. 연구소 특성화 방안
II. 연구소 운영 현황	IV. 결 론

국문초록

이 글은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운영 성과와 고전교육을 위한 특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교양교육연구소의 운영 모델을 모색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조직과 인적 구성, 연구 활동, 교육 활동을 소개하고,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단계별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3년 10월 1일에 설립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대학 및 국가 수준에서의 교양교육 정책 연구, 교양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 성과 진단 및 분석, 환류 프로그램 개발,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간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소장과 감사, 간사 등 약간 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활동은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연구 활동으로는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의 발간, 국내 학술대회 개최, <창파강좌>의 공동 주최,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전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페레 아우데, <단국권장도서 101>

* 단국대 교수, yoonsj@dankook.ac.kr

독서토론대회,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운영 등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거점 연구소'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기반 강화기(2019~2022)에는 연구소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고전교육 방법론을 모색한다. 그리고 2단계 성장 발전기(2023~2025)에는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어 연구소 특성화 계획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이러한 특성화 방안은 대학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운영 현황, 특성화 방안, 학술지, 학술대회, 고전, 지성사

I. 연구소 설립 배경과 역사

2010년을 전후로 한국교양교육학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독립성과 함께 글쓰기센터나 BSM센터 같은 교육기관과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교양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교양교육 내실화에 대한 열망을 자양분으로 잉태되었다.¹⁾

단국대학교가 교양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2년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결과 때문이었다.²⁾ 이 조사에 참여한 단국대

1)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설립 과정과 이후 연구소 활동에 대해서는 『두루내』 35호에 간략히 소개된 바 있다. 윤승준, 「고전 및 지성사 교육의 메카를 꿈꾸며 (확대경: 교양교육연구소 탐방)」, 『두루내』 35,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0, 26-31쪽 참조.

학교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참여한 학생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조사대상 11개 부문 가운데 의사소통 능력 부문을 제외한 10개 부문에서 대부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결과는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 당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은 무엇인가 교양교육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양교육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담당할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2013년 10월 1일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출범하게 되었다. 초대 소장은 박삼철 교수가 맡았으며, 연구소는 천안캠퍼스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 출범 초기만 해도 교양기초교육연구소를 대하는 구성원의 이해 시각은 제각기 달랐다. 교양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연구소를 둘러싼 이해관계나 헤게모니 싸움에 신경을 쓰는 이들이 더 많았다. 그 결과 출범 초기 연구소는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이렇다 할 활동을 펼치지 못한 채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주관해 온 워크숍에 공동 주최 기관으로 이름을 엮을 뿐이었다.³⁾

당시 단국대학교 교양교육 전담기관은 교무처장이 기관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2014년 7월 교무부처장을 맡고 있던 박병조 교수가 교무처장에 새로 보임되면서 학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기 시작하였다.⁴⁾ 교무

2)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기초교육 실태진단 연구팀,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3) 단국대학교는 2013년 기존의 교양학부를 교양기초교육원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5년 교양교육대학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2020년에는 캠퍼스별로 운영해 오던 교양교육대학을 하나의 자유교양대학으로 통합하였다. 단국대학교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워크숍은 2014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4) 필자는 박병조 교무처장의 요청으로 2014년 7월 천안캠퍼스 울곡도서관에서 열린 교무처 워크숍에서 당시 단국대학교 교양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제기하면서 학부 교육에 대한 대학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였다. 윤승준,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2014년 단국대학교 교무(지원)처 워크숍 자료집』, 2014.

처 워크숍을 통해 당시 단국대학교 교양교육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대학은 학부 교육 개선을 위한 시도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⁵⁾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학의 의지가 연구소 지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단국대학교의 교양교육 환경은 대학구조개혁평가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같은 대학 평가를 기회로 조금씩 개선되었다. 교양교육과정은 물론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교양교육 전담 조직을 단과대학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무처장이 겸직하던 기관장을 별도로 보임한 것도 그에 따른 결과였으며(2015), 글쓰기센터와 BSM센터, 인성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도 그에 따른 결과였다(2018).

그러나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연구소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가 필요했는데,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이 그 전기가 되었다.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교육연계형)은 기초교양교육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때마침 단국대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교육과정과 학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교양교육 혁신은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될 경우, 대학의 교육 혁신 전략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이와 같은 상황적 논리 덕분에 2019년 5월 1일자로 대학 부설 연구소로 승격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고전교육 방법론 개발 및 확산」을 주제로 한 과제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연구소 전용 공간과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

5) 2014년 7월 교무처 워크숍 이후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준 것은 학부 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편안 연구」(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2015.)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201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진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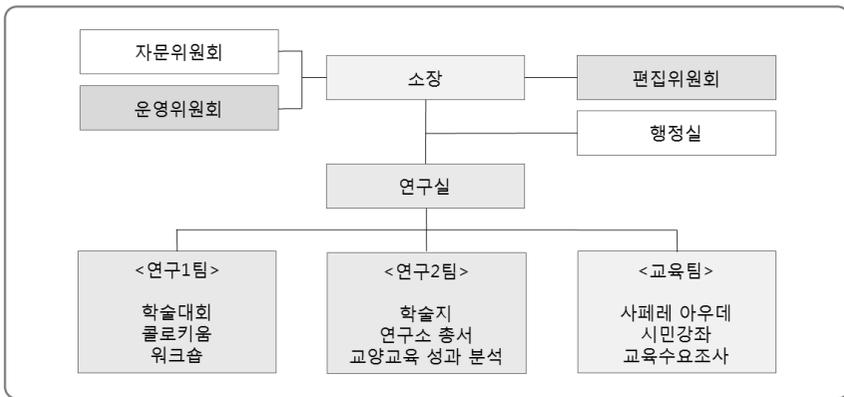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주요 연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013.10.01.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설립(초대 소장: 박삼철 교수)
- 2014.08.26.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워크숍 개최
- 2018.03.01. 제2대 소장 김유미 교수 부임
- 2019.05.01. 대학 부설 연구소 승격
- 2019.06.01. 제3대 소장 윤승준 교수 부임
- 2019.09.01. 한국연구재단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 2020.01.03. 제1회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 2020.01.07. 제1기 용인시민 인문교양강좌 개설(용인문화원 공동 주관)
- 2020.03.31.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 제1권 제1호 발행
- 2020.06.13.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 개최
- 2020.09.10. 제1회 사페레 아우데(Sapere aude) 개최
- 2020.09.30.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 제1권 제2호 발행
- 2021.01.05. 오산시민과 함께 하는 <고전, 깊이 읽기> 개설
- 2021.01.22. 제2회 대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 학술대회 개최
- 2021.02.08. 단국권장도서 101 재선정
- 2021.03.31.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 제2권 제1호 발행
- 2021.05.07. 수원시민과 함께 하는 <나를 채우는 인문학여행> 개설
- 2021.05.21. 제1회 <단국권장도서 101> 독서토론대회 개최
- 2021.06.04.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 개최
- 2021.06.30. 기획총서 『청춘, 고전에 길을 묻다 ①』 발간
- 2021.09.30.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 제2권 제2호 발행
- 2022.01.21.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3회 학술대회 개최

II. 연구소 운영 현황

1. 조직 및 인적 구성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대학 및 국가 수준에서의 교양교육 정책 연구, 교양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 성과 진단 및 분석, 환류 프로그램 개발,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간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소장과 감사, 간사 등 약간 명의 임원을 두며,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⁶⁾



[그림 1]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조직도

2022년 3월 1일 현재 연구소장은 윤승준 교수(자유교양대학)가 맡고 있으며, 유혜원 교수(자유교양대학)가 감사, 이유진 교수(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간사를 맡고 있다. 연구소에는 연구교수 3명과 직원(계약직) 1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연구보조원 4명이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6) 「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제3조(사업)-제14조(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규정, 예산, 연구과제 개발·선정·평가 등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연구소장), 위원 9명(자유교양대학 5명, 사범대학 1명, 교육대학원 3명), 감사 1명(자유교양대학), 간사 1명(교양기초교육연구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를 비롯하여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나오는 모든 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자유교양대학), 위원 10명(자유교양대학 2명, 문과대학 1명, 경영경제대학 1명, 교육대학원 1명, 외부 위원 5명), 간사 1명(교양기초교육연구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교내외 교양교육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소 운영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 여에 걸쳐 교내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기초로 2013년 처음 선정되었던 <단국권장도서 101>을 새롭게 재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⁷⁾

2. 연구 활동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은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의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수행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 발간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는 2020년 3월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연 2회, 3월 31일과 9월 3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7)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단국권장도서101선”, <https://cms.dankook.ac.kr/web/rclass/-101->, 2021, 2022.03.17.

있다. 『교양기초교육연구』 창간호에서는 연구소 학술지 창간의 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왜 또 하나의 목소리이고자 하는가? 논문대량화의 세상에는 이미 이런저런 저널들이 차고 넘친다. …(중략)… 전문가들의 방언으로 코드화된 학술지의 논문이라는 글은 정작 자기 나름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여념이 없는 연구자들에게도 외면받고, 오직 투고자 자신과 심사자만 읽는 글이 되어 간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이런 읽지 않는 글 뒤에 숨는 또 하나의 읽지 않는 글을 생산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한 개인의 인격 형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의 습득을 통해 일정한 문화 이상을 획득하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교양이다. …(중략)… 이런 교양의 성취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자기 극복과 자기 초월의 주체, 그리고 자유의 주체는 불안의 주체이기도 하다. …(중략)… 어떤 절대적 권위에 종속되는 것으로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소시켰다면 몰라도 자유를 선택했다면 삶은 항상 문제와 함께 하는 것이다. …(중략)…

이런 의미에서 『교양기초교육연구』는 우리 모두 진정한 교양인이 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 …(중략)… 문제와 싸우는 영혼의 허기와 정신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지상의 양식들이길 우리는 바란다. 그렇다면 읽을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도 이런 지상의 양식들은 많아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다.⁸⁾

교양교육 관련 학술지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또 하나의 목소리를 보태는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양기초교육연구』 창간호에서 밝힌 학술지 창간의 변은 곧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연구소 학술지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교양교육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논문과 서평, 논평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하

8) 김주연, 「창간호를 펴내며」, 『교양기초교육연구』, 제1권 제1호,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 121-1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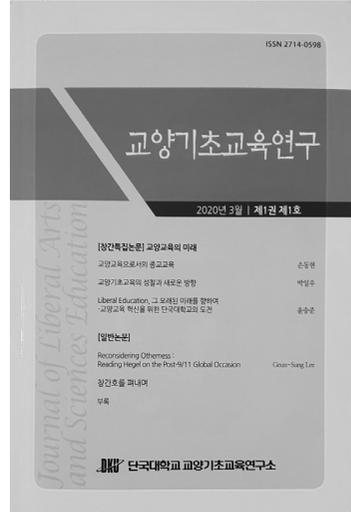
고 있다. 연중 제한 없이 원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⁹⁾

『교양기초교육연구』 제1권 제1호(2020.3)는 ‘교양교육의 미래’를 특집으로 손동현, 박일우, 윤승준 교수의 논문을 수록하였으며, 일반논문으로 이근성 박사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인문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특집으로 한 제1권 제2호(2020.9)에는 정인모, 김광식 교수의 논문을 수록하였으며, 그와 함께 주미란, 이서라 교수의 일반논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제2권 제1호(2021.3)는

‘교양교육과 핵심역량의 재인식’을 특집으로 손종현, 박정하, 이숙정, 전은화 교수의 논문을 수록하였고, 박영미 교수의 논문을 일반논문으로 수록하였다. 제2권 제2호(2021.9)는 ‘사회과학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특집으로 김주환, 서문석, 이하준 교수의 논문을 수록하였고, 김성희 교수의 일반논문과 함께 박병철 교수의 특별기고 논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제1권 제2호부터는 1~2편의 서평을 수록하여 학술지가 지향하는 성격의 일단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2) 학술대회 개최

연구소 출범 초기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워크숍을 공동 주최하는데 머물렀던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2020년부터 독자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구소 차원의 학술대회를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게 된 것



[그림 2] 교양기초교육연구 창간호

9) 『『교양기초교육연구』 간행 및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은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수주에 따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⁰⁾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제1회 학술대회는 “인문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년 6월 13일(토) 개최되었다. 고전교육 방법론 모색을 위해 연구소가 기획한 학술대회 가운데 첫 번째 학술대회였다. 부산대학교 정인모 교수가 「고전읽기와 교양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고, 김연숙 교수가 경희대 ‘고전읽기’ 교육 사례를, 김유미 교수가 단국대 ‘명저읽기’ 교육 사례를, 김광식 교수가 서울대 ‘고전세미나’ 교육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단국대학교 김주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임선숙 교수, 송효정 교수, 김주환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인문 고전 교육의 의의와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표 1〉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회 학술대회(2020.6.13.)

발표 주제	발표자	토론자
고전읽기와 교양교육	정인모 (부산대)	
교양교육과 문학 -경희대 “고전읽기 / 박경리 토지”를 중심으로-	김연숙 (경희대)	임선숙 (단국대)
명저읽기에서 질문생성을 위한 수업방법 -그리스 비극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유미 (단국대)	송효정 (대구대)
서울대 인문 고전교육 “독서세미나: 고전에 길을 묻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를 중심으로-	김광식 (서울대)	김주환 (단국대)

10)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2020학년도 교내 연구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어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토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이 연구소 기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미래융합연구원, 「2020학년도 부설 및 일반 연구소 연구기관 평가 결과 안내」(문서번호: 연구평가지원팀-432), 단국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2021.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제2회 학술대회는 2021년 6월 4일(금) “사회과학 고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등 사회과학 분야 주요 저작과 관련하여 서문석 교수와 김주환 교수, 김민수 교수, 김성희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단국대 이동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선재원 교수와 권오용 교수, 김동혁 교수, 남진숙 교수가 참여하여 사회과학 고전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환기하고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표 2〉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2021.6.4.)

발표 주제	발표자	토론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교양교육	서문석 (단국대)	선재원 (평택대)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사회과학 고전 활용: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김주환 (동아대)	권오용 (충남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의 교육적 의미와 현재성	김민수 (단국대)	김동혁 (GIST)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의 사회과학 교육: 한양대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을 통해 살펴 본 사회과학 고전 읽기 구성과 운영	김성희 (한양대)	남진숙 (동국대)

그리고 2022년 1월 21일(금)에는 “자연과학 고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준기 교수, 박종석 교수, 정용욱 교수, 조현국 교수가 발표를 맡아주었고, 이봉우 교수의 사회로 손연아 교수, 장수철 교수, 김지영 교수, 김인영 교수가 토론을 하였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고전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하는 기회였다.

〈표 3〉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3회 학술대회(2022.1.21.)

발표 주제	발표자	토론자
필름이 끊긴 어느 날 아침 - 『화씨 451』과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책』으로 들여다보는 고전의 의미	이준기 (전북대)	손연아 (단국대)
과학 고전과 과학 교양 사이: 종의 기원과 진화	박종석 (경북대)	권문호 (경북사대부고)
양자역학 태동의 한 단면: 『부분과 전체』	정용욱 (경상국립대)	김민철 (공주대)
과학과 세계의 대화: 『과학혁명의 구조』와 『생각의 탄생』	조현국 (단국대)	하상우 (경북대)

한편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2021년 1월 22일(금) 대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 제2회 학술대회를 주관,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하여 교양교육학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핵심역량 문제를 기획주제로 삼았던 탓에 온라인으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손종현 교수와 단국대 전은화 교수, 숙명여대 김혜영 교수, 성균관대 박정하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아주대 송하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중앙대 한수영 교수, 서강대 김지영 교수, 위덕대 김인영 교수, 연세대 장수철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서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교양교육학계에서 그동안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핵심역량의 문제를 학술 연구의 장으로 끌어 들인 첫 번째 학술대회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었던 학술대회였다.¹¹⁾

11) 이날 발표되었던 4편의 논문은 연구소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 제2권 제1호 (2021.3.)에 특집으로 수록되었다.

〈표 4〉 대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 제2회 학술대회(2021.1.22.)

발표 주제	발표자	토론자
핵심역량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양능력 키우기와 교육실천론	손중현 (대가대)	한수영 (중앙대)
대학 교양교육의 성과: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전은화 (단국대)	김지영 (서강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의 준비	김혜영 (숙명여대)	김인영 (위덕대)
역량 개념 지도 그리기	박정하 (성균관대)	장수철 (연세대)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아주대학교 다산기초교육연구소,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연세대학교 자유교양교육연구센터, 위덕대학교 창의융합개발센터와 함께 한국교양교육학회 대외협력부가 주최하는 〈창파강좌〉의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¹²⁾

3) 연구과제 수행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과제 “Liberal Education을 위한 고전교육 방법론 개발 및 확산: 교과목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를 수행하고 있다.

단국대학교는 2020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하면서 교양교육과정 또한 새롭게 개편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통교양 〈명저읽기〉가 신설되었다. 또

12)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창파강좌〉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의 동아시아 교양교육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국제 심포지움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교양교육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 역사와 현황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대학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 2023학년도에는 중핵교양 <세계 지성사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두 과목 모두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 신입생들이 매년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이 과제는 동서양 고전을 바탕으로 설계된 <명저읽기>와 <세계 지성사의 이해> 운영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전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중핵교양 교과목의 새로운 전범을 제시해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문답식해제나 개념어사전, 동영상 콘텐츠 등 고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아울러, 읽기와 토론, 쓰기를 연계한 통합교육 방법론을 적용하여 학

생들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전교육 성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매학기 교육 성과를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교과목 개선을 추구한다.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단국대학교에서는 2020학년도에 공통교양 교과목 <명저읽기>를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식의 문답식해제를 집필하였다. 그 가운데 우선 15편의 해제를 묶어 『청춘, 고전에 길을 묻다 ①』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성과를 공간하였다.¹³⁾ 문답식해제 『청춘, 고전에 길을 묻다』는 시리즈로



[그림 3] 『청춘, 고전에 길을 묻다 ①』

13) 『청춘, 고전에 길을 묻다 ①』에는 인문학 분야 5권, 사회과학 분야 4권, 자연과학 분야 3권, 동양고전 3권에 대한 문답식해제를 수록하였다.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청춘, 고전에 길을 묻다 ①』, NOSVOS, 2021.

간행할 예정인데, 해제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단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선정한 「단국권장도서 101」이다.

뿐만 아니라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는 2022년 2월 현재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안티고네, 니코마코스 윤리학, 삼국유사, 파우스트, 위대한 유산, 죄와 벌, 고도를 기다리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전체주의의 기원, 종의 기원, 양자역학, 마리 퀴리,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위대한 과학자 뉴턴, 남한산성 등 17종의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전 관련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는 고전교육 방법론 모색을 위하여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과 <명저읽기> 교강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콜로키움에서는 이현우, 구본권, 조한별, 우응순, 손윤락 교수 등 고전교육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전교육과 관련한 특강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

〈표 5〉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현황

회차	일시	초청강사	콜로키움 주제
1	2020.01.03.	이현우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2020.02.14.	서문석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학술지 운영 계획
3	2020.05.25.	구본권	AI 시대의 고전 읽기
4	2020.10.19.	조한별	세인트 존스의 고전 100권 공부법
5	2021.02.22	박정철	구글 문샷 씽킹으로 뒤집는 수업
6	2021.03.25.	정준영	교양교육의 한국적 계보: 일제강점기 경성제대와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7	2021.05.14.	김현주	Assessing Writing: What does it mean to write "well" in English?
8	2021.06.16.	김혜영	포스트 코로나 대학영어 읽기 지도의 방향
9	2021.06.25.	우응순	대중 교양의 시대: 대학 교육의 위기
10	2021.11.19.	손윤락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철학과 교양교육

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콜로키움에서는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 교수학습방법이나 교양영어 교수법, 한국 교양교육의 역사, 연구소의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진행한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내용은 위의 <표 5>와 같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는 고전교육 방법론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명저읽기> 교강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명저읽기> 교강사 워크숍은 교과목 개설의 목적과 운영 지침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실제 교과목 운영 사례의 발표와 토론에 이르기까지 고전교육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6> <명저읽기> 교강사 워크숍 개최 현황

회차	일시	발표자	발표 주제
1	2020.01.03.	윤승준 김주연	대학 4.0 시대의 교양교육: <명저읽기>, 고전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 LAC 교과목으로서 <명저읽기> 강좌의 방향 설정을 위한 모색
2	2020.02.18.	김주연	<명저읽기> 강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3	2020.06.18.	권순구 박재휘 김주환	고전교육 성과 측정 도구 개발 연구 주요 경과 명저읽기(인문) <논어> 읽기 명저읽기(사회) 교과목 수업 경험을 돌아보며
4	2020.9.14.	권순구 이영진 이권희 윤승준	2020-1학기 <명저읽기> 교과목 운영의 교육적 성과 2020-1학기 <명저읽기> 자연계열 <명저읽기> 고전교육 방법론 모색을 위하여 고전교육, 교양필수 교과목 운영 사례
5	2021.11.25	이현경 정연수	명저읽기(인문) <꿈의 해석> 강의 사례 명저읽기(인문) <태백산맥> 운영 사례
6	2021.06.11.	김미정 이현영	명저읽기(사회) <문명화과정> 강의 사례 명저읽기(인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강의 사례

회차	일시	발표자	발표 주제
7	2021.07.13.	김상엽 손태창	명저읽기 수업 사례-E.H. Carr, 역사란 무엇인가 명저읽기 수업 사례-일리아스
8	2021.12.17.	박정하 임선숙	성균관대학교 고전교육 프로그램 명저읽기 수업 사례-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9	2022.01.18.	이영준 강민정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고전교육 명저읽기 수업 사례-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을 중심으로

3. 교육 활동

교양교육은 기본적으로 연구의 대상일 뿐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는 점에서 교양교육 관련 연구소는 연구만이 아니라 교육 활동도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사페레 아우데, 독서토론대회, 교양인문강좌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1) 사페레 아우데

사페레 아우데는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참여자 중심의 독서토론회 명칭인데, 본래는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계몽주의의 표어로 제시했던 말이다.¹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는 뜻의 사페레 아우데(Sapere aude)를 독서 토론회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대학생들이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

14) Immanuel Kant, "What Is Enlightenment?", *Basic Writings of Kant*, Random House US, 1784, p.135.

이다. 따라서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독서 토론회 사페레 아우데는 책에 대한 강연보다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연구소에서는 2020년 9월 10일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마당을 열었고, 한 학기에 두 차례씩 학생들 스스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7〉 독서토론모임 사페레 아우데 운영 현황

회차	일시	진행자	독서 토론회 도서
1	2020.09.10.	임승필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2	2020.11.26.	임승필	플라톤, 향연
3	2021.04.27.	김민수	플라톤, 국가 제1권
4	2021.07.22	김민수	플라톤, 국가 제2권-제5권
5	2021.08.26.	김민수	플라톤, 국가 제6권-제10권
6	2021.11.05.	백주진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제1권~제2권
7	2022.01.05.	백주진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제3권~제6권
8	2022.02.18.	백주진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제7권~제10권

2) 〈단국권장도서 101〉 독서토론대회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는 단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선정한 〈단국권장도서 101〉이 명목상의 권장도서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읽히고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부터 글쓰기센터와 공동으로 〈단국권장도서 101〉 독서토론대회를 신설하였다.¹⁵⁾

15) 단국대학교에서는 2013년 책 읽는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단국권장도서 101〉을 선정·공지하였는데, 여기에는 대학생들이 읽기 어려운 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는 2020년 교내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12월 ‘단국권장도서 101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에 걸친 작업을 진행한 끝에, 2021년 2월 새롭게 선정한 〈단국권장도서 101〉을 공지하였

제1회 <단국권장도서 101> 독서토론대회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등 4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6) 예선에서는 대상 도서 4권을 읽고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한 발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상위 4개 팀이 “질병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는 정당한가”(준결승), “부의 재분배 정책을 위한 재산권 제한은 정당한가”(결승)를 주제로 한 실시간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3)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인문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2월 현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용인문화원, 오산시 중앙도서관,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와의 업무 협약을 토대로 일반시민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연구소의 인문교양강좌는 단국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용인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강좌의 기획 및 운영은 연구소에서 맡고, 수강생 모집 및 장소 제공은 용인문화원이 담당하기로 양해하여 두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시작된 <제1기 용인시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는 2020년 1

다.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단국권장도서101”, <https://cms.dankook.ac.kr/web/rclass/-101->, <http://lib.dankook.ac.kr/digicol/list/582?process=SEARCH>, 2021, 2022.03.17.

16) 2021학년도 <단국권장도서 101> 독서토론대회에는 총 11개 팀이 참여했다.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단국권장도서101 독서토론대회”, https://portal.dankook.ac.kr/web/portal/-2?p_p_id=Bbs_WAR_bbs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pos=2&p_p_col_count=3&_Bbs_WAR_bbsportlet_sKeyType=title&_Bbs_WAR_bbsportlet_curPage=3&_Bbs_WAR_bbsportlet_action=view_message&_Bbs_WAR_bbsportlet_sKeyword=%EA%B8%80%EC%93%B0%EA%B8%B0%EC%84%BC%ED%84%B0&_Bbs_WAR_bbsportlet_messageId=737500, 2021, 2022.03.17.

월 7일(화) 오후 7시 용인문화원에서 개강하였다. 수준 높은 인문교양강좌에 목말라 하던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 1기 프로그램에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그러나 뜻밖에 불어 닥친 COVID-19로 인해 제1기 인문교양강좌는 개강 한 달만에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본래 12주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3월 마지막 주에 수료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 확산에 따라 닷달 가까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 프로그램은 우여곡절 끝에 8월 4일(화) 제1기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오랜만에 고전의 참맛에 흠뻑 취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¹⁷⁾

〈표 8〉 제1기 용인시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프로그램

주차	일시	강사	주제
1	2020.01.07.	김주언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2	2020.01.14.	안숙현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3	2021.01.21.	이소희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4	2021.01.28.	이유진	박지원, 〈열하일기〉
5	2021.05.26.	이항재	투르게네프, 〈아버지와 아들〉
6	2021.06.23.	장두식	이광수, 〈무정〉
7	2021.06.30.	신미삼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8	2021.07.07.	김유미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9	2021.07.14.	서상국	톨스토이, 〈부활〉
10	2021.07.21.	임선숙	염상섭, 〈삼대〉
11	2021.07.28.	윤승준	괴테, 〈파우스트〉
12	2021.08.04.	오민석	오민석, 〈밥 딜런, 그의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17) 우상표, “용인시민들, 동·서양 고전 정수에 폭 빠지다”, 용인시민신문,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25>, 2020.8.13.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는 <제1기 용인시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의 성공적 운영을 토대로 2021년 1월부터 12주간 <제2기 용인시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오산시민과 함께 하는 <고전, 깊이 읽기> 프로그램도 격월로 운영하였다. 또한 2021년 5월부터는 수원시 선경도서관과 함께 <나를 채우는 인문학 여행> 상반기 프로그램과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는 서수원도서관과 함께 <문화의 날에 만나는 문학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제3기 용인시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강좌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고전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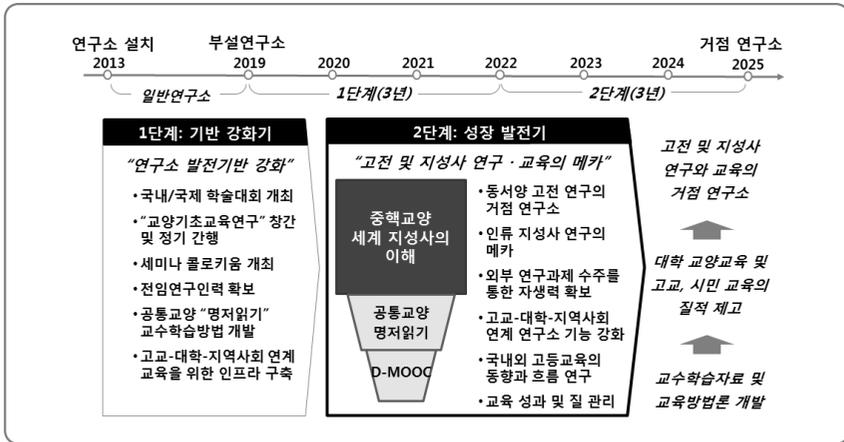
III. 연구소 특성화 방안



[그림 4]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특성화 계획과 발전 방향

2013년 설립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2019년 5월 대학 부설 연구소로 승격하면서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거점 연구소’로 성장한다는 연구소 특성화 계획 및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교육·협력

및 봉사 3개 분야에서 이와 같은 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⁸⁾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향후 10년 내에 교양교육 분야 국내 TOP 5 연구소, 고전 및 지성사 연구 분야 국내 TOP 10 연구소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그 토대를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된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그와 같은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¹⁹⁾



[그림 5]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단계별 발전전략

1. 1단계 특성화 방안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거점 연구소’로 성장한다는 특성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연구소의 발전

18)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단국대학교 부설연구기관 3개년 발전계획(안)」, 2021.

19)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19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연구계획서」, 2019, 7-12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1단계 기반 강화기에는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소 본연의 학술적 기능을 강화한다. 2013년 설립된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그동안 학술지 발간은 물론 학술대회조차 독자적으로 개최하지 못했을 만큼 유명무실한 연구소에 불과하였다. 연구소의 독립된 공간은 물론 연구소 전담 인력과 재원의 확보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행히 2019년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연구소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2020년 3월 연구소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같은 해 6월 연구소의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거점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해 1단계 3년 간 고전교육 방법론 모색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통교양 <명저읽기> 교과목 담당 교강사 워크숍을 지원하고,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또한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 고전교육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고전교육 방법론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아울러 고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한다. 연구소에서는 고전에 대한 기존의 해제와는 다른 형식의 문답식해제를 집필하여 2021년 6월 『청춘, 고전에 길을 묻다 ①』이라는 제하의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영상 콘텐츠를 연차적으로 제작하여 고전교육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고전에 대한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야기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도 한다. 사례례 아우데, <단국권장도서 101> 독서토론회,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전교육의 교육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성과측정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매학기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고전교육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고전 및 지성사 연구의 거점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²⁰⁾

〈표 9〉 교양기초교육연구소 1단계(2019~2022) 특성화 전략

특성화 전략	추진 과제
1. 고전교육 방법론 모색	- 〈명저읽기〉 교강사 워크숍 개최 -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 학술대회 개최
2. 고전교육 콘텐츠 개발	- 문답식해제 『칭춘, 고전에 길을 묻다』 발간 - 개념어사전 발간 -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활용
3. 고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페레 아우데 운영 - 〈단국권장도서 101〉 독서토론대회 개최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운영
4. 고전교육 성과 측정 및 분석	- 공동교양 교과목 〈명저읽기〉의 교육성과 진단 및 분석 - 고전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2. 2단계 특성화 방안

2단계 3년간은 1단계에서 구축한 연구소 기반을 토대로 본격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시기로,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목표로 하는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거점 연구소’로 성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는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이기도 한 만큼 연구소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20)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용인시 용인문화원, 오산시 중앙도서관,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아주대학교 다산기초교육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운영 및 대학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고 있다.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소에서는 고전 교육이 지성사 교육으로 심화·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단국대학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중핵교양 교과목으로 <세계 지성사의 이해>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과목은 국내 몇몇 대학에서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되기는 하였으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운영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이 교과목은 세계 지성사의 전개와 주요 이슈를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면서 오늘의 세계가 있기까지 인류의 성취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그에 비추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조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게 하는 과목이 될 것이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결코 녹록지 않을 이 과제를 풀어가면서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거점 연구소'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1단계 고전교육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고전 교육에서 지성사 교육으로 나아가는 연결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연구 인력과 교육 인력도 발굴,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표 10〉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단계(2023~2025) 특성화 전략

특성화 전략	추진 과제
1. 고전교육과 지성사 교육의 연결지평 개발	- 고전 명저 및 저자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세계 지성사, 사회사, 예술사 연구과제 개발
2. 지성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세계 지성사의 이해> 교재 개발 - 지성사 관련 동영상 콘텐츠 개발
3. 지성사 담당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 <세계 지성사의 이해> 교강사 워크숍 개최
4.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네트워크 구축	- 고전 및 지성사 연구 인력 양성 -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 연구소 학술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추진

한다.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연구과제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자생력은 그 과정에서 절로 생겨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IV. 결 론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단국대학교 교양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교양교육 내실화에 대한 열망을 토대로 2013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2019년 5월 1일 대학 부설 연구소로 승격된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교육연계형)에 선정되면서 연구소로서의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대학 및 국가 수준에서의 교양교육 정책 연구, 교양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 성과 진단 및 분석, 환류 프로그램 개발,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간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소장과 감사, 간사 등 약간 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의 주요 활동은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연구 활동으로는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의 발간, 국내 학술대회 개최, <창과강좌>의 공동 주최,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연구과제(「Liberal Education을 위한 고전교육 방법론 개발 및 확산: 교과목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2019~2025) 수행을 들 수 있다. 특히 교양기초교육연구소에서는 고전교육 방법론 개발과 관련하여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교강사 워크숍, 문답식해제, 동영상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전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페레 아우테, <단국권장도서 101> 독서토론대회,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등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도 하다.

교양기초교육연구소는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거점 연구소’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기반 강화기(2019~2022)에는 연구소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등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고전교육 방법론 모색을 위하여 콜로키움과 워크숍 개최, 문답식해제 출간, 동영상 콘텐츠 제작, 고전교육 성과 측정 도구 개발 및 진단 등에 주력한다. 그리고 2단계 성장 발전기(2023~2025)에는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어 연구소 특성화 계획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지성사의 이해>라는 중핵교양 교과목을 개발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한다. 고전 교육에서 지성사 교육으로 나아가는 연결지평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연구소가 감당해야 하는 2단계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매년 국내·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고전 및 지성사 연구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연구 과제의 발굴 및 연구·교육 인력을 양성한다. 이로써 고전 및 지성사 연구와 교육의 거점 연구소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교양기초교육연구소 특성화 방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연구소는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초기에 걸어야 했던 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0년 대학교양교육연구소협의회가 발족하여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연구소들이 정보를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연구소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가 걸어온 길은 교양교육연구소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양교육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규정집, 2019.
- 김주연, 「창간호를 펴내며」, 『교양기초교육연구』, 제1권 제1호,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0.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19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연구계획서」, 2019.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단국대학교 부설연구기관 3개년 발전계획(안)」, 2021.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청춘, 고전에 길을 묻다 ①』, NOSVOS, 2021.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편안 연구」, 2015.
- 단국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2020학년도 부설 및 일반연구소 연구기관 평가 결과 안내」(문서번호: 연구평가지원팀-432), 2021.
- 우상표, 「용인시민들, 동·서양 고전 정수에 폭 빠지다」, 용인시민신문 2020.8.13.
- 윤승준,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2014년 단국대학교 교무(지원)처 워크숍 자료집, 2014.
- 윤승준, 「고전 및 지성사 교육의 메카를 꿈꾸며(확대경: 교양교육연구소 탐방)」, 『두루내』 35,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0.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기초교육 실태진단 연구팀,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2.
- Kant, Immanuel, “What Is Enlightenment?”, *Basic Writings of Kant*, Random House US, 1784.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단국권장도서101”, <https://cms.dankook.ac.kr/web/rclass/-101->, <http://lib.dankook.ac.kr/digicol/list/582?process=SEARCH>, 2021, 2022.03.17.

Abstract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and a Specialization Plan for the Institute

Yoon, Seungjoon(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Research Center by introducing the operational results of Dankook University's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DILAS) and a specialization plan for classics education. To this end, the organization, personnel composition, research activities, and educational activities of DILAS were introduced, and specialization strategies for each step was proposed to integrate research and education classics.

Founded on October 1, 2013, DILAS researches liberal arts education policy at university and national level, develops liberal arts curriculum and subjects, diagnoses and analyzes liberal arts education outcomes, develops feedback programs, and conducts various seminars related to liberal arts education. Its main businesses include holding academic conferences and publishing academic journals. DILAS has a few executives such as the director, auditor, and secretary, and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Editorial Committee.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research activities and educational activities. Research activities include publication of the academic journal 'Research

on Liberal Arts and Science Education’, holding domestic academic conferences, co-hosting 〈Blue Waves Lecture〉, 2019 A Support Project for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classical education,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and the local community are being carried out, such as Sapere aude, 〈Dankook Recommended Book 101〉 reading debate contest, and humanities liberal arts lectures for local residents.

DILAS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step-by-step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goal of growing into a ‘research center for classical and intellectual history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first stage of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2019~2022), in order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e, it focuses on performing its original functions, such as publishing academic journals and holding academic conferences, while exploring the classical education methodology. And in the second stage of growth generator (2023~2025), there is a plan to realize the goal of the research institute specialization plan by focusing on creating practical results in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classical and intellectual history. This specialization plan of DILAS can be considered as a model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at universities.

[Key Words]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current status of operation, specialization plans, academic journals, academic conferences, classics, history of intelligence